

철새 3배로 늘자 AI 급속 확산...전남 날만새면 '확진' 잇따라

11월 기준 전남 도래 철새 73종 20만6000마리...점점 증가
 철새 증가에 AI 오염도 3.6배 높아지고, 바이러스 변이 심해
 두 달 새 전남서 고병원성 AI 11건 발생...살처분 165만 마리

전국 최대의 가금류 산지인 전남에서 올 겨울 들어 '닭·오리'에 치명적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 11월부터 두 달간 발생 농장만 11곳에 달하고 예방적 살처분된 가금류는 165만8000여 마리를 넘어섰다.
 고병원성 AI 조기 확산은 지난해 대비 겨울 철새 유입이 크게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환경부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16일 현재 전남에선 영암·순천·고천·고창·강진 등 35개 철새도래지에서 겨울철새 73종 20만6000마리가 확인됐다. 이는 지난 11월(6만2000마리)보다 3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특히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등 고병원성

AI 검출 주요 축종인 오리과 조류는 16만6000마리로 지난해(3만4000마리)보다 5배 가까이 늘었고, 12월 들어서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철새수 증가는 지난 겨울 대비 AI 오염도를 3.6배 높였을 뿐 아니라 바이러스 변이 또한 심한 상황으로 만들었다.
 이 때문에 지난 6일 현재 전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34건 중 11건이 전남에서 발생했을 정도다.
 축종별론 종 오리 1건·육용오리 7건 등 오리가 총 8건이며, 달걀을 낳은 산란계는 3건이다. 특히 전남에서도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가금류를 사육 중인 가운데 철새도래지 인근에 농장이 밀집한 나주지역 발생 건수는 6건에 달하고 있다.
 'AI 항원'이 검출된 농장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면 고병원성 AI 확진률이 100%를 기록하고 있다.
 일선 방역 현장에선 "확산 속도가 역대 가장 빠르고 강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도 확산세를 누그러 뜨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시행 중이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나주에서 고병원성 AI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자 사육 밀도가 높은 인접 영암군까지 포함, 양 지역에 한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오리농장에서 AI 발생 시 1km 내만 살처분을 했지만 2km 내로 범위가 늘었으며, '500m 내 가금류 전체 축종'으로 적용을 확대했다.
 나주·영암 지역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조정 범위 확대는 17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전남도 또한 겨울 철새가 가장 많이 도래하는 12월에 접어들어 특단의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오는 20일까지 일제 집중소독 기간을 운영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가금농장과 관련시설을 꼼꼼히 소독하고 점검하고 있다.



5일 오후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사례가 확인된 전남 함평군 한 산란계 농장에서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 겨울은 이례적일 정도로 짧은 기간에 AI가 집중 발생하고 있다"며 "농장간 수평감염 차단에 중점을 두고 보내

582곳 전체 가금 농장을 대상으로 선제적 일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1~11월 광주·전남 강수량 829mm...역대 두 번째 적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광주·전남 지역 누적 강수량이 829mm를 기록, 기상 관측 이래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주기상청 '2022년 가을철(9~11월) 기후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1월부터 11월까지 지역 누적 강수량은 829.3mm다.
 이는 기상 관측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평년 대비 61.2% 수준에 불과하다. 누적 강수일수도 76.7일로, 평년에 비해 23일이 적다.
 역대 1~11월 누적 강수량이 낮았던 시기는 1988년(818.7mm)이었다.
 기상청은 올 여름철 비 구름대가 주로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면서 광주·전남에 비가 적게 내렸다고 설명했다. 비가 많이 내리야 할 시기인 봄·여름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가을까지 가뭄이 지속됐다고 기상청은 풀이했다.
 실제 지역 봄·여름철 강수량은 각 205.7mm, 412.3mm를 기록하면서 평년 대비 50~60%대 수준에 그쳤다.
 김재환기자

'1년 만에 문 연' 천사무료급식소... "겨울철 한 끼 걱정 덜어"



7일 오전 광주 북구 우산동 천사무료급식소에서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도시락 나눔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운영 중단 후 재개
 도시락 500인분 1시간여 만에 동나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 들어가
 "추운 겨울에 한 끼라도 챙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소"
 7일 오전 10시 30분께 광주 북구 우산동 천사무료급식소. 텀모자와 목도리 등으로 몸을 꽂꽂 싸맨 어르신 수백여 명이 200여m 인도로 한 칸에 줄을 섰다.
 급식소 안에는 먼저 온 어르신들이 복도에 쌓인 체크무늬 장바구니를 차례대로 받고 있었다. "다음주에 또 오세요"라는 자원봉사자의 말에 어르신들을 연신 "고맙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어르신들은 급식소에서 나눠주는 도시락을 받기 위해 모였다. 급식소에서 마련한 체크무늬 장바구니 안에는 갖 지은 밥과 조기, 제육볶음 등 반찬이 든 도시락과 과

자·마스크 등이 담겼다. 급식소가 12월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 점심마다 도시락을 배부하기로 하자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다.
 급식소가 준비한 도시락 500인분 중 450여 개가 배부 시작 30여 분 만에 없어졌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일부 어르신들이 찾아와 남은 도시락을 교환권과 바꿔가면서 배부 1시간여 만에 모든 도시락이 동났다.
 지난해 10월부터 '일대' 현수막이 붙은채 방치돼 온 급식소는 이날 임시 운영을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지난해 9월까지 운영돼 오던 급식소는 당시 코로나19 확산과 인력난 등의 문제를 겪으며 운영이 중단됐다.
 급식소는 문을 닫기 전까지 매주 월·수·금요일마다 현장배식을 진행하며 어려운 형편의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와 쉼터를 제공했다. 급식소가 문을 닫자 한 주에 한 끼만

이라도 부담을 덜고자 하는 어르신들의 사정이 어려웠다.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북구자원봉사센터가 올해 3월부터 우산근린공원에서 '사랑의 밤차' 배식 봉사를 진행했지만 이마저도 예산난을 겪으면서 지난해 중단됐다.
 급식소는 지난 10월 광주 북구와 운영 주체인 한국나눔연맹(연맹)이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다시 운영될 수 있게 됐다. 정식 운영에 나서는 내년 1월부터 향후 5년 동안 이 자리에서 매주 3회 점심 식사를 제공한다.
 도시락을 받아든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급식소 운영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혈액암을 앓으면서 홀로 살고 있는 김모(78·여)씨는 "급식소가 문을 닫기 이전부터 줄곧 이용해왔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 끼니 걱정이 컸다"며 "다시 매주 한 끼라도 도움 받을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이다"고 말했다.
 정승호기자

금·토요일 쉽다 홈페이지 i-honam.com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